



## 식용곤충의 인식과 선호도 조사

강원국<sup>1</sup>, 지민기<sup>2</sup>, 강혜수<sup>2</sup>, 박진선<sup>2</sup>, 박성주<sup>2</sup>, 허윤형<sup>2</sup>, 임채윤<sup>2</sup>, 김옥진<sup>3†</sup>

<sup>1</sup>원광대학교 대학원 동물매개심리치료학과, <sup>2</sup>원광대학교 애완동물식물학과, <sup>3</sup>원광대학교 동물자원개발연구센터

### Study on the preference of edible insects by age group

Won-Guk Kang<sup>1</sup>, Min-Gi Chi<sup>2</sup>, Hye-Su Kang<sup>2</sup>, Jin-Sun Park<sup>2</sup>, Sung-Ju Park<sup>2</sup>,  
Yoon-Hyung Heo<sup>2</sup>, Chae-Yoon Lim<sup>2</sup>, Okjin Kim<sup>3†</sup>

<sup>1</sup>Majored in Animal Assisted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Complimentary

<sup>2</sup>Department of Pet Animal-Plant Science, Wonkwang University

<sup>3</sup>Center for Animal Resource Development Research, Wonkwang University

#### Abstract

식량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곤충 사업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곤충이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대량사육이 가능하며, 인수공통전염병이 없으므로, 질병, 전염병 우려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사육으로 인한 환경 파괴가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식용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8백 곳으로, 1년 만에 5배 넘게 늘었으며 농촌진흥청은 곤충산업 규모가 2020년 2조~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커져가는 식용 곤충 산업에 대해 사람들의 곤충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를 알아볼 필요성을 느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10대부터 40대 이상의 연령층을 조사하여 다양한 연령의 선호도에 대해 조사하였고 유년기 시절 지역을 조사하여 지역에 따른 곤충의 선호도 정도를 조사하였다. 온라인 400명 오프라인 400명으로 표본 집단의 크기를 충분히 하였다. 해당 설문 조사에서는 유년기 지역보다는 성별로 식용 곤충 섭취 경험이 나뉘어 졌다. 향후 식용 곤충 섭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지만 가공된 식품으로 대중화 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판단한다.

**Keywords:** 식량 부족, 미래 식량, 곤충, 인식, 설문조사

†Corresponding author. E-mail: [kimoj@wku.ac.kr](mailto:kimoj@wku.ac.kr)  
TEL: +82-63-850-6668, FAX: +82-63-850-7308

## I. 서론

미래의 식량부족문제에 따른 해결방안 중 하나로 곤충사육이 크게 뜨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에 발효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각도에서 곤충 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산업적 이용 전망을 고취시키고 있다(법제처, 2010).

이로서 곤충산업의 미래에 대한 조금 더 집중적이고 먼 미래의 식량수급에 대해서 2013년 Wales(2013)는 “향후 50년간 농축산물에 큰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기후 변화가 우려 된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세계 주요국에서는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 대두로 화분매개, 천적곤충의 가치가 조명되고 있으며 곤충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지정·육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친환경 농업과 시설농업의 성장으로 천적곤충과 화분매개 곤충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곤충산업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곤충산업은 아직까지 산업으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기초적인 통계 및 곤충농가 등록 DB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 전망과 함께 용도별 실태 및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김연중 외, 2015)

최근 지구 기후의 변화와 더불어 식량의 수급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식량 전쟁으로 표현되는 현대의 식량 문제는 쌀, 보리, 밀, 옥수수, 감자 등 전통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곡물 생산과 분배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식성의 요구를 반영하며 동시에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충분한 단백질의 수요 충족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식량 수급에 대한 불안감은 전통적 농업 생산 시스템의 변화와 현대화 및 첨단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의 인류 식량의 공급원 이외의 새로운 대안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곤충을 인류의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으로 활용하자는 ‘식용곤충’분야이다(정철의 & Lalit P. Sah, 2012; FAO, 2013).

곤충시장은 지난 2009년 1,500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엔 예상치인 3천억 원의 3배에 달하는 9천억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곤충을 재료로 쓴 음식도 등장 하는데, 귀뚜라미나 ‘고소애’를 이용해 쿠키와 파스타, 강정을 만드는 것이다. 단백질 함유량 또한, 식용곤충으로서의 귀뚜라미는 80%로 단백질 효율이 매우 높으며 모든 동물, 식물, 인간에게 유해한 곤충은 0.5%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다(임성아, 2011).

식용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8백 곳으로, 1년 만에 5배 넘게 늘었으며 농촌진흥청은 곤충산업 규모가 2020년 2조~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MBC뉴스데스크, 2017). 곤충이 앞으로 크게 각광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쇠고기 1kg를 만드는데 드는 곡물은 7.7~9.3kg, 돼지고기 5kg, 귀뚜라미는 1.3kg~1.7kg 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곤충이 미래의 대체 식량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다. 곤충을 식량자원으로 개발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대량사육이 가능하며, 인수공통전염병이 없으므로, 질병, 전염병 우려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손민우 등, 2014). 곤충은 많은 지역 사회에서 동물 단백질의 주요 원천이며 식생활 다변화를 위해 중요하며 또한 곤충 소비의 대부분은 선택이 아닌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며 지역 문화의 일부이다. 그리고 곤충이 계절적 식량 부족 현상에 대한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Dufour, 1987). 곤충은 중요한 식품일 뿐 아니라 식품, 농업 필수품 및 교육 등 기복적인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자금원이기도 하다(Agea, 2008; Hope, 2009). 우리나라의 식용곤충 농가는 2011년 265가구에서 2015년 724가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농림 축산 식품부, 2013). 2015년 식용곤충의 시장규모는 약 60억 원으로 추정되며, 2020년 규모는 1,014억 원으로 예상된다. 2015년 대비 2020년은 16.9배의 증가 전망이 기대된다(농촌진흥청, 2013).

우리나라의 경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곤충을 식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먹어온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했다(월간CEO 앤포스트). 이로 인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식용곤충은 메뚜기, 누에번데기, 백강잠 세 종류뿐이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곤충 식품화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한 결과 2016년도에 고소애(갈색거저리 유충), 쌍별이(쌍 별 귀뚜라미), 꽃벥이(흰 점박이 꽃무지 유충), 장수애(장수풍뎅이 유충) 등 식용곤충 4종이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되면서, 본격적인 곤충식품산업이 시작됐다(연합뉴스, 2016).

농촌진흥청(2017)은 3월 식품공전에 등재돼 일반식품으로 활용 가능한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와 2014년 새로운 식품원료로 한시적 인정된 ‘꽃벥이(흰 점박이 꽃무지 애벌레)’를 활용한 「창업을 위한 식용곤충요리」 책자를 발간했다. (농촌진흥청, 2017). 또한 농림 축산 식품부는 곤충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이름 공모를 통해 갈색거저리는 ‘고소애’로, 흰 점박이 꽃무지는 ‘꽃벥이’로, 장수풍뎅이 유충은 ‘장수애’로, 쌍 별 귀뚜라미는 ‘쌍별이’ 같은 애칭으로 탈바꿈시켰다.(농림 축산 식품부) 식용곤충 산업의 활성화에 힘입어 식용곤충 전문 레스토랑도 큰 인기다. 식용곤충 카페 ‘이더블’은 기능성과 영양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쿠키 등의 과자류와 양갱, 에너지 바, 한방차 등을 판매한다(이더블버그, 2016). 그리고 국내 최초 식용곤충 캐주얼 레스토랑인 ‘빠빠용의 키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topclass, 2016).

국가별 식용 곤충류의 개수는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우며 2012년에 약 1900여 종으로 정리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섭취하는 곤충은 딱정벌레이다(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13). 중국은 170여 종의 식용곤충과 10종의 약용 곤충을 대량 사육하고 있으며, 사료용 곤충 수출로 10조 원 규모의 곤충 시장을 형성했다. 미국의 기업에서는 귀뚜라미를 튀겨서 빵은 가루를 원료로 한 에너지 바를 이미 생산하여 판매 중이다(Chapul 차풀, Original Cricket Bar). 그 외에도 유럽 각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식용곤충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실제로 이미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2007년에는 11조 원이었던 세계 곤충 산업 시장은 2020년에는 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최민지,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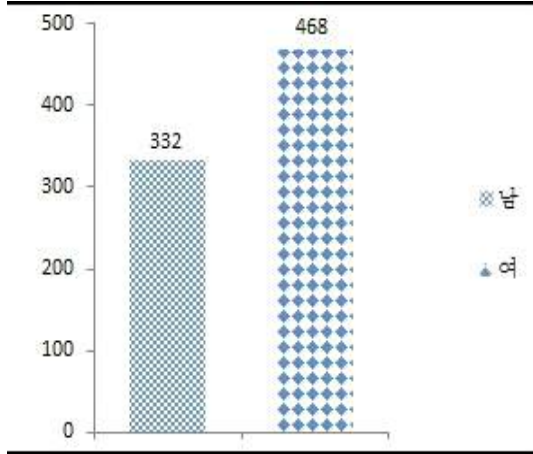
국내외적으로 주목받는 식용곤충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령별 인식과 선호도가 궁금하여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미래식량으로 각광받는 식용곤충의 연령별 선호도를 조사하여 식용곤충에 대한 거부감을 변화시키고 미래의 밥상으로 식용곤충이 자리를 잡기 위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

## II. 연구방법

2017년 05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익산 액션하우스와 원광대학교에서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400명, 오프라인 400명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총 12문항으로 연령과 성별, 유년시절 살았던 지역, 식용곤충 섭취 경험의 유무, 식용곤충을 섭취했을 때 맛에 대해 묻는 문항, 식용곤충 산업의 전망에 대해 묻는 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조사는 성별을 묻는 1번 문항으로 시작하여 연령을 체크하는 2번 문항, 유년기 소재 지역을 묻는 3번 문항, 식용곤충의 섭취 유무를 체크하는 4번 문항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먹어본 곤충의 종류와 맛을 묻는 소 문항, 향후 식용곤충 섭취 의향에 묻는 5번 문항과 섭취한다면 어떤 곤충과 어떤 형태의 식품으로 섭취할 것인지 체크하는 소 문항, 섭취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6번 문항, 식용곤충 산업의 전망에 대해 묻는 7번 문항과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겐 그 이유를 묻는 소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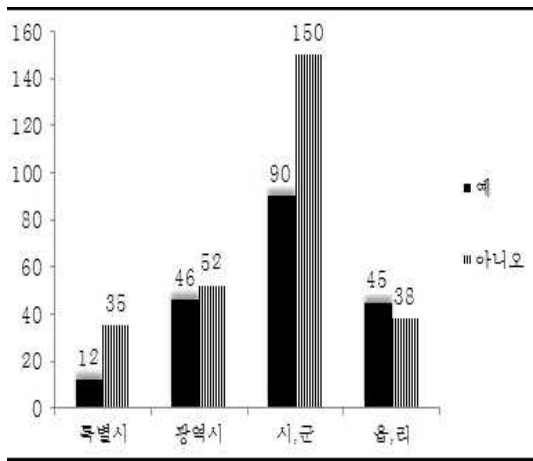
### Ⅲ. 결과 및 제언

<그림1> 응답자의 성별



<그림1>과 같이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총 800명으로 남성이 332명으로 41%, 여성이 468명으로 59%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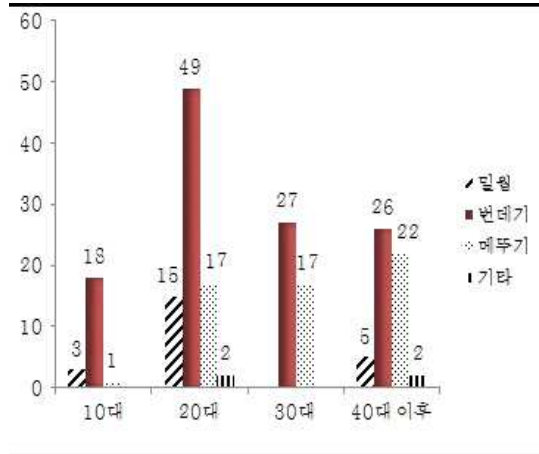
<그림2> 유년기 지역 별 여성 응답자의 식용곤충 섭취 경험



<그림2>와 같이 468명의 여성 응답자에서 유년기 지역별로 식용곤충 섭취 경험을 분류했을 때 먹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275명으로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 193명 보다 높았다. 특히 '시, 군' 또는 '읍, 리'가 유년기 시절인 응답자가 식용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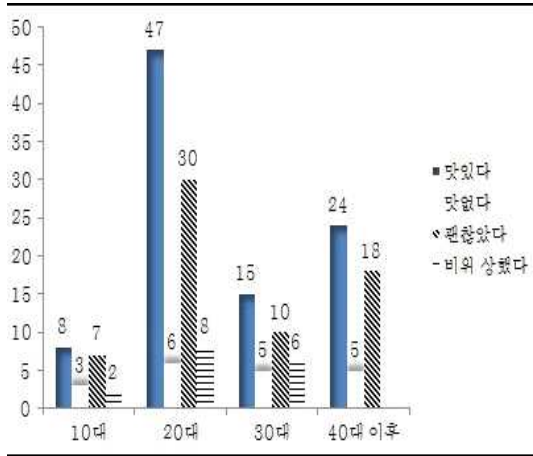
충을 먹은 경험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은 깨고 '시, 군'은 식용곤충 섭취경험이 없는 사람이 150명으로 섭취경험이 있는 사람인 90명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유년기 지역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군'를 제외하고 '읍, 리'만 식용곤충 섭취경험 수치가 높았다. 유년기 지역이 '시, 군', '읍, 리'처럼 시골인 사람들은 곤충을 먹어봤을 것이라는 편견을 없애야 할 필요성이 상기되었다.

<그림3> 연령 별 여성 응답자가 먹어본 식용곤충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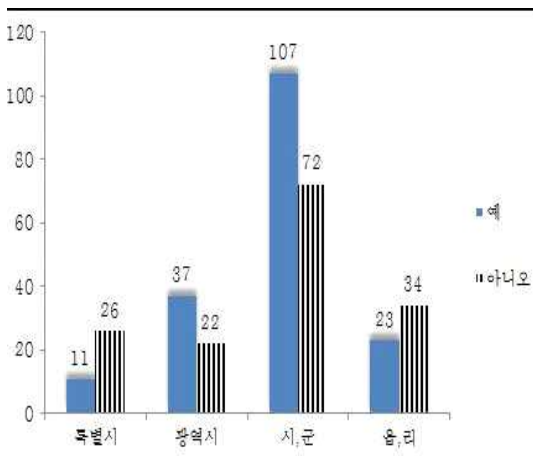
<그림3>과 같이 468명의 여성 응답자에서 식용곤충 섭취 경험이 있는 193명의 응답자를 연령별로 나누어 먹어본 식용곤충의 종류를 조사했다. 전체적으로 전 연령층이 번데기 섭취가 가장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쉽게 접하는 만큼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는 메뚜기의 섭취도 두 번째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 이후' 연령층이 다양한 식용곤충을 먹어봤을 것이라는 생각을 벗어나 식용곤충을 다양하게 섭취해 본 연령층은 '20대'로 번데기, 밀웜, 메뚜기, 기타 등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대' 연령층이 식용곤충을 접할 기회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림4> 연령 별 여성 응답자가 먹어본 식용곤충의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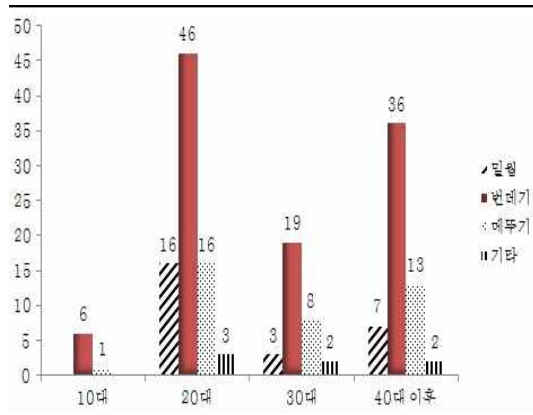
<그림4>와 같이 468명의 여성 전체 응답자에서 식용곤충 섭취 경험이 있는 193명의 응답자를 연령별로 나누어 먹어본 식용곤충의 맛을 조사했다. 전체적으로 전 연령층이 ‘맛있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두 번째로는 ‘괜찮았다’라고 응답했다. ‘맛없다’와 ‘비위 상했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로 식용곤충의 맛은 전 연령층에게 긍정적으로 맛이 평가 된다고 보인다.

<그림5> 유년기 지역 별 남성 응답자의 식용곤충 섭취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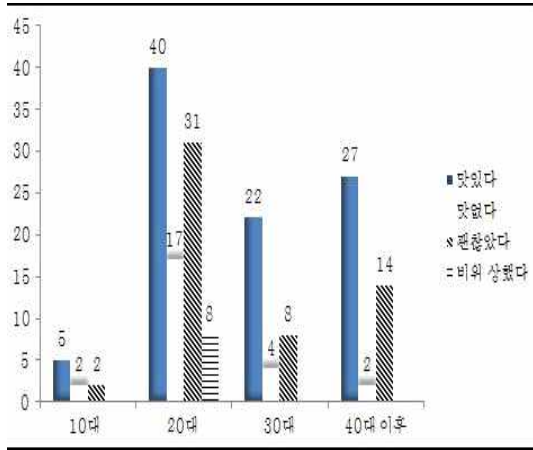
<그림5>와 같이 332명의 남성 응답자에서 유년기 지역별로 식용곤충 섭취 경험을 분류했을 때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178명으로 먹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인 154명 보다 높았다. 남성응답자는 여성응답자보다 식용곤충을 먹어본 경험이 높았으며, ‘광역시’와 ‘읍, 리’를 비교했을 때 ‘광역시’가 ‘읍, 리’보다 식용곤충을 먹어본 경험이 높게 나왔다. 유년기 지역이 ‘시, 군’, ‘읍, 리’처럼 시골인 사람들은 곤충을 먹어봤을 것이라는 편견을 없애야 할 필요성이 상기되었다.

<그림6> 연령 별 남성 응답자가 먹어본 식용곤충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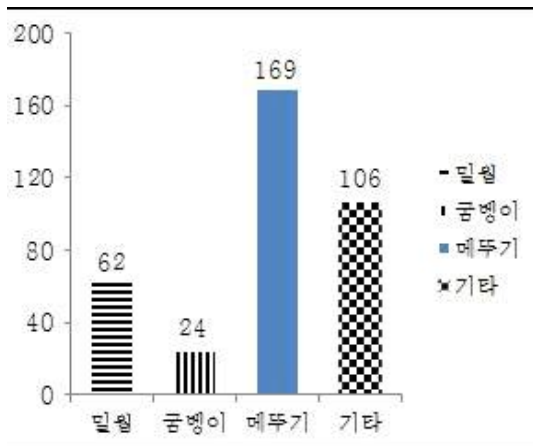
<그림6>과 같이 332명의 남성 응답자에서 식용곤충 섭취 경험이 있는 178명의 응답자를 연령별로 나누어 먹어본 식용곤충의 종류를 조사했다. 전체적으로 전 연령층의 번데기 섭취가 가장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쉽게 접하는 만큼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는 두 번째로 메뚜기의 섭취가 높았다. ‘밀웜’과 ‘기타’ 식용곤충은 ‘메뚜기’와 ‘번데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가 나왔다. ‘30대’와 ‘40대 이후’ 연령층이 다양한 식용곤충을 먹어봤을 것이라는 예상을 벗어나 ‘20대’가 가장 다양한 식용곤충의 종류를 섭취 했는데 이는 ‘20대’ 연령층이 식용곤충을 접할 기회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림7> 연령 별 남성 응답자가 먹어본 식용곤충의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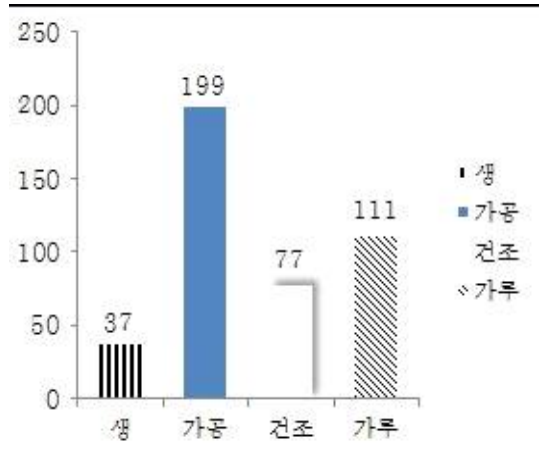
<그림7>과 같이 332명의 남성 응답자에서 식용곤충 섭취 경험이 있는 178명의 응답자를 연령별로 나누어 먹어본 식용곤충의 맛을 조사했다. 전체적으로 전 연령층이 '맛있다'라고 응답했으며, 두 번째로 '괜찮았다'라고 응답했다. '맛없다'와 '비위 상했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여성 응답자와 비교했을 때 여성 응답자에서는 '비위 상했다'라는 응답이 많은 연령대에 나온 것에 비해 남성 응답자는 '2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비위 상했다'라는 응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림8> 향후 식용곤충을 먹는다면 어떤 곤충을 드시겠습니까?



<그림8>과 같이 전체 응답자 800명 중 향후에 식용곤충을 먹겠다고 응답한 340명에서 향후 식용곤충을 먹는다면 어떤 곤충을 드시겠습니까? 질문에 메뚜기가 169명으로 가장 많은 47%를 차지했으며, 두 번째로 기타가 106명으로 29%였다. 세 번째로는 밀웬이 62명으로 17%, 네 번째는 금병이가 24명으로 7%로 나타났다. 메뚜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보아 메뚜기를 먼저 식용으로 도입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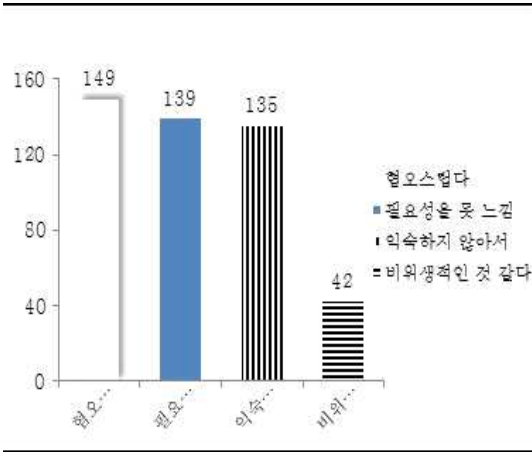
<그림9> 향후 식용곤충을 먹는다면 어떤 형태의 식품을 드시겠습니까?



<그림9>와 같이 전체 응답자 800명 중 향후에 식용곤충을 먹겠다고 응답한 340명에서 향후 식용곤충을 먹는다면 어떤 형태의 식품을 드시겠습니까? 질문에 '가공'형태가 199명으로 47%를 차지했으며, 두 번째는 '가루'형태가 111명으로 26%, 세 번째는 '건조'형태가 77명으로 18%, '생'형태가 37명으로 9%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식용곤충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 형식의 식품이 73%로 과반수가 넘는 비율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식용곤충을 식품화 하기 위해서는 식용곤충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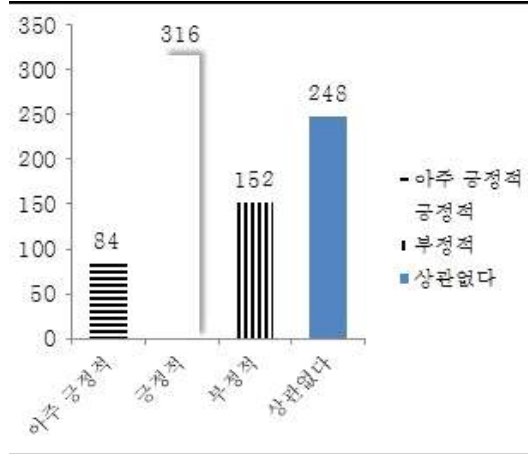


<그림10> 향후 식용곤충을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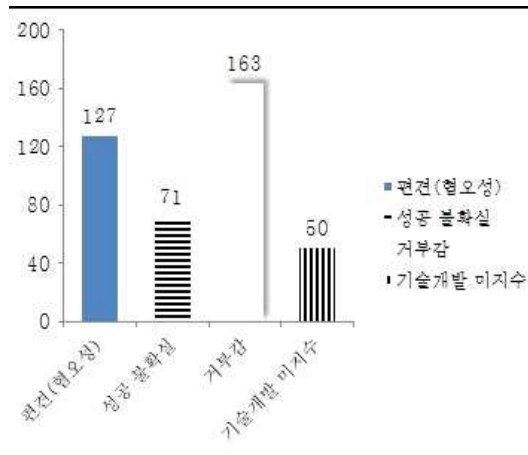
<그림10>과 같이 전체 응답자 800명 중 향후에 식용곤충을 먹지 않겠다고 응답한 460명에서 향후 식용곤충을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에 ‘혐오스럽다’가 149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인 32%를 차지했으며, 두 번째는 ‘필요성을 못 느낌’이 139명으로 30%를 차지했다. ‘익숙하지 않아서’가 135명으로 29%, ‘비위생적인 것 같다’가 42명으로 9%를 차지하였다. ‘비위생적인 것 같다’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들이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혐오스럽다’와 ‘익숙하지 않아서’라는 부분은 식용곤충을 가공된 식품으로 다양화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필요성을 못 느낌’라고 답변을 한 응답자는 동물 단백질의 부족현상과 식용곤충 섭취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식용곤충을 식량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위생적인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한 응답자는 식용곤충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식용곤충의 유통과정을 공개해 식용곤충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변화하도록 유도한다.

<그림11> 식용곤충 산업의 전망에 대한 생각



<그림11>과 같이 전체 응답자 800명 중 식용곤충 산업의 전망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16명으로 40%를 차지했으며, 두 번째는 ‘상관없다’가 248명으로 31%가 나타났다. ‘부정적’이 152명으로 19%, ‘아주 긍정적’이 84명으로 10%를 나란히 차지하였다. 긍정적인 응답이 50%를 차지하며 식용곤충 산업이 전도유망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12> 식용곤충 산업의 전망에 대해 ‘부정적’, ‘상관없다’에 체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림12>와 같이 전체 응답자 800명 중

식용곤충 산업의 전망에 대해 '상관없다'와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50%를 차지하며 그 중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한 것은 '거부감'으로 163명인 40%를 차지했다. 두 번째는 '편견(혐오성)'이 127명으로 31%, '성공불확실'이 71명으로 17%, '기술개발 미지수'가 50명으로 12%를 나타냈다. 식용곤충산업의 필요성을 알리며 거부감이 들지 않는 다양한 곤충 식품으로 다가간다면 사람들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식용곤충 식품의 성공사례와 식용곤충을 응용한 기술을 알리고 식용곤충을 하나의 문화로 만든다면 식용곤충 산업의 대성황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를 토대로 유년기 지역과 식용곤충 섭취의 연관성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흔히 유년기 지역이 시골인 '시, 군', '읍, 리'인 사람이 식용곤충 섭취를 많이 했을 것이라는 편견을 줄일 수 있었다. 특히,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식용곤충을 섭취해 본 경험이 적은 것으로 보아 유년기 지역보다는 성별로 식용곤충 섭취경험이 나뉘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연령별로 섭취해 본 식용곤충의 종류와 맛을 살펴본 결과, 번데기가 가장 많은 섭취 율을 보였다. 이로 인해 주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고 익숙한 식품인 번데기는 거부감이 적고 혐오성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맛 또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 번데기처럼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식용곤충을 익숙하게 접한다면 거부감과 혐오성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향후 식용곤충의 섭취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많지만 향후 식용곤충 식품 섭취로 메뚜기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날 것인 식품보다 가공, 가루식품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식용곤충의 섭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해 곤충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식품보다 가공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곤충 식품을 상품화한다면 식용곤충 섭취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래식량으로 대두되는 식용곤충 산업의 긍정적인 반응과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크게 드러나는 거부감과 혐오성을 타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속적인 식용곤충 산업의 발전을 위해 유사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선호도의 다양화가 이루어져 긍정적인 산업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 설문을 시행하면서 부족했던 점은 설문 진행시 식용곤충 시식을 하려 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실시하지 못하였다.

## 참고문헌

1. 김연중, 한혜성, 박영구(2015). 미래농업으로 공충산업활성화 방안, 연구보고 R758, 6(7):5
2. 김옥진, 손민우, 최만영, 문형철, 김일평(2014). 유용곤충 길라잡이.
3.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13). FAO 산림국 보고서. p.10, p.123
4. 농촌진흥청(2016). '창업을 위한 식용곤충요리', '한우 농가 현장 활용 분야별 기술보급서'.
5. 법제처(2010).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연합뉴스(2016). 고소에·쌍별귀뚜라미... 곤충, '일반식품원료' 승인.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603/dh20160310112435138160>.
7. 월간CEO앰포스트(2016). 농업의 블루오션, 식용곤충 산업.  
[http://www.ceopartners.co.kr/bbs/board.php?bo\\_table=bd\\_03&wr\\_id=76&page=7](http://www.ceopartners.co.kr/bbs/board.php?bo_table=bd_03&wr_id=76&page=7).
8. 이더블버그(2016). 식용곤충 국내외 현황.
9. 임성아(2011). 낙농강국 네덜란드, 곤충에 눈을 돌리다.
10. 정철의, Lalit P. Sah(2012). 인류 식량으로서의 곤충 자원에 관한 연구, 한







- 국토양동물학회지. 16호, p1-8
11. 한국식용곤충연구소(2016). 식용곤충 전문식당 ‘빠빠용의 키친’.  
<http://topclass.chosun.com/board/view.asp?catecode=Q&tnu=201608100024>.
  12. Agea, J.G., Biryomumaisho, D., Buyinza, M. & Nabanoga, G.N. 2008. Commercialization of *Ruspolia nitidula* (Nsenene grasshoppers) in Central Uganda. *African Journal of Food Agriculture and Development*, 8(3): 319-332.
  13. Dufour, D.L. 1987. Insects as food: a case study from the northwest Amazon. *American Anthropologist*, 89(2): 383.
  14. Eric J. Wales(2013). 제1차 세계 식량 포럼. 전남발전연구원
  15. Patrick B. Durst, Dennis V. Johnson, Robin N. Leslie and Kenichi Shono(2013). Edible forest insects Human bite back.
  16. Mbc 뉴스테스트(2017). ‘애완용부터 식용까지’ 곤충산업 다방면 급성장.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272959\\_21408.html](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272959_21408.html)

**부록: 설문지**

「이 설문은 식용 곤충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답변자의 답변 내용은 비밀을 보장하며, 통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광대학교 애완동식물학과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자                      ②여자
  2. 귀하의 연령에 체크해주세요.  
 ①10대                      ②20대                      ③30대                      ④40대 이후
  3. 귀하의 유년기 때의 지역을 체크해주세요.  
 ①특별시                      ②광역시                      ③시.군                      ④읍.리
  4. 식용 곤충을 먹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①예                              ②아니요  
 ②에 응답하신 분은 5번으로 가주세요
  - 4-1. 어떤 곤충을 드셔보셨습니까?  
 ①밀웜                      ②번데기                      ③메뚜기                      ④기타
  - 4-2. 맛은 어땠습니까?  
 ①맛있다                      ②맛없다                      ③괜찮았다                      ④비위 상했다
  5. 식용 곤충을 향후에 드시겠습니까?  
 ①예                              ②아니요  
 ②에 응답하신 분은 6번으로 가주세요
  - 5-1. 드신다면 어떤 곤충을 드시겠습니까?  
 ①밀웜                      ②굽벙이                      ③메뚜기                      ④기타
  - 5-2. 어떤 형태의 식품을 드시겠습니까?  
 ①생                              ②가공                      ③건조                      ④가루
- 



6. ‘먹지 않는다’ 에 응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혐오스럽다                      ②필요성을 못 느낌                      ③익숙하지 않아서                      ④비위생적인 것 같다
  7. 식용 곤충 산업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아주 긍정적                      ②긍정적                      ③부정적                      ④상관없다  
 ③, ④에 응답하신 분은 7-1번으로 가주세요
  - 7-1. 7문항에서 ③부정적,④상관없다 란에 체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식용곤충에 대한 편견(혐오성, 위생)                      ②식용곤충산업의 성공 불확실  
 ③식용곤충모습에 대한 거부감                      ④식용곤충식품 관련 기술개발 미지수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